

중국 사회 근대적 전환의 역사단계*

— 키워드 중심의 관념사 연구 —

진관타오(金觀濤) | 대만 국립정치대학 중문과교수

번역 이기윤 | 성균관대학교

■ 논문분야 중국 근현대사

■ 주제어 근대 중국 사상의 기원과 변천, 관념사, 관념사의 파노라마 속의 중국 사회, 중국 사회 전환의 초안정시스템, 관념과 사회의 상호작용

■ 요약문

이 글은 근대 중국 사상의 기원과 변천에 관한 연구가 낳은 성과를 데이터베이스 기법을 통해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관념사의 파노라마 안에서 중국 사회의 근대적 전환을 논의할 수 있다. 우리는 관념사 연구가 중국 사회 전환의 초안정시스템의 역사관을 확증하며, 이를 통해 관념사 연구에서 아서 러브조이(Arthur O. Lovejoy)가 언급한 기본적인 이론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선 근대성과 직접 관련되는 100여 개의 주요 핵심어들을 선별했다. 이 핵심어들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근대성의 세 가지 기본 요소들(개인의 권리, 도구적 합리성, 민족 정체성)의 기원과 변모를 논의했다. 우리는 근대적 가치들을 중국이 수용하는 과정이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1840~1894년에 해당하는데, 이 단계는 유교를 통한 근대 서구사상의 선택적 수용이 특징이다. 유교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들은 관심을 받

* 접수(2009. 9. 1), 심사 및 수정(2009.12.13), 게재확정일(2009.12.18)

이 글은 한림과학원 인문한국사업 <동아시아 기본 개념의 상호통사업>에서 2009년 9월 25일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개념의 절함과 횡단>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글은 중국어로 쓰여 발표, 투고되었고 번역 이후 한림과학원의 송인재 HK연구교수와 양일모 교수의 감수를 거쳤다. 특히 근대와 현대라는 용어에 대해 저자에게 문의한 후 중국어에서 近代는 pre-modern, 現代는 modern, 當代는 contemporary에 해당한다는 답신을 얻어 이와 같이 번역했다.

지 못하거나 거부되었다. 근대 서구사상을 학습하는 단계는 청일전쟁(1894~1895) 이후이다. 중국과 서구의 구분을 뒷받침하는 이원론적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던 이 두 번째 단계, 특히 1900~1914년의 시기에 개인의 권리, 도구적 합리성, 문화적 민족주의는 중국 사회의 근대적 전환을 야기하는 데 막대한 위력을 갖게 되었다. 이는 또한 중국의 정치사상이 서구에 근접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1915년에 재구성의 단계가 이전 학습단계를 대체했는데, 이것이 신문화운동(1915~1924) 이후 계속 이어지는 세 번째 단계의 시작이다. 이 단계에서는 서구로부터 학습된 근대적 개념들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겪는다. 그러한 재구성이 낳은 것이 우리가 당대사상이라 부르는 중국식 근대적 관념으로 이 관념은 5·4운동 이후 중국에서의 혁명과 당-국가 체제의 성립을 지배하였다.

근대성은 서구에서 유래하였다. 일반적으로 전통 사회의 근대적 전환은 민족국가 확립하기 위해 서구의 근대적 가치들을 학습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하지만 중국에서 서구로부터의 학습단계는 매우 짧아서 20년이 채 안 된다. 중국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의 영향력이 중국식 근대적 관념 형성에 중요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중국 사회의 근대적 전환이 중국 전통 사회의 작동 양식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점과 역사 속의 문화 통합 양식, 즉 역사 속의 초안정시스템은 여전히 붕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안정시스템은 고대와 근대의 중국 역사를 설명하는 데 시스템론(system theory)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한 양식이다. 이 양식은 불변하는 심층 구조의 사고 방식 때문에 유효성을 갖는다. 『중국 근대 사상의 기원: 초안정 구조의 관점에서 본 중국 정치 문화의 변천』에서 우리는 심층 구조의 사고 방식을 논의했다. 100여 개의 개념들에 대한 우리의 검토는 불변하는 심층 구조의 사고 방식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다. 비록 1930년대 초 아서 러브조이는 이미 관념이 장기 지속적이고 변화하기 어려운 사고 방식이라고 믿었지만 그의 관점은 역사 연구에서 결코 입증된 적이 없었다. 중국 사회의 근대적 전환에 대한 관념사 연구는 러브조이의 관점에 대한 시험이다. 이는 관념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새로운 연구영역을 열어놓는다.

1. 데이터베이스 방법이 내포한 혁명

중국 사회의 근대로의 전환에 대한 거시적 연구는 매우 많이 이루어졌지만, 관념사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다. 지금까지 중국에는 관념사 연구의 전통이 없었던 이유도 있고, 모두가 관념의

근대화 없이는 근대적 사회제도와 행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인식하면서도 관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보거나 만질 수가 없어서 실증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세기 인문학 연구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언어학적 전향이다. 우리는 언어학적 전향이 관념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인의 사상이 사회의 보편사상으로 변화될 때, 그 전제는 반드시 그의 사상을 구성하는 요소-관념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보편 관념이라도 반드시 그것의 표현은 하나 혹은 다수의(심지어는 한 세트의) 어휘(키워드)에 대응한다. 그러므로 관념의 기원과 형성(변천과 전환을 포괄)은 키워드의 역사 의미론적 분석을 통하여 추적할 수 있으며, 관념의 보편화 또한 상응하는 키워드가 역사 문헌에서 출현하는 빈도 통계로 증명할 수 있다. 후자는 근대적 관념의 기원, 형성과 전파는 반드시 어휘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에 이르는 수백 년 간의 모든 문헌을 입력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근대적 관념과 관계있는 키워드 검색과 통계분석을 통해서 반드시 근대성의 기원, 형성 그리고 상응하는 각종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념 변화의 전체적인 그림을 통하여 사회 전환의 거시적 단계를 그려내고, 근현대사 시기구분의 표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에서 관념사는 유명한 이론이며, 키워드 역사의미론 연구 또한 매우 발달하였다. 다만 근대 사회로의 전환 기간이 길고, 보급된 문헌의 언어가 다양하며, 유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대적 관념의 기원과 변천을 연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그에 반해 중국 사회는 전통에서 근대로의 전환이 한 세기 동안에 이루어졌고, 보급된 문헌의 언어가 단순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건립이 상대적으로 쉽다. 바로 이 때문에 관념의 근대적 전환에 대한 연구는 중국이 유리하다. 필자와 류칭평(劉青峰) 교수는 대략 1997년부터 홍콩 정부와 타이완 장징궈(蔣經國)기금회의 도움으로 일련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중국의 근대적 관념의 기원과 관련된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념사를 탐색하면서 사상 전

환의 철학연구는 처음으로 경험으로 검증될 수 있었다. 우리의 십여 년간의 연구 성과는 『관념사 연구』¹⁾에 집약되어 있다. 필자는 주로 이 책의 내용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은 중국 근현대 사회 전환의 거시적 상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중국의 근대적 관념은 어떻게 생겨났고, 그 변천에는 몇 개의 단계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들은 중요한 사회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근현대사의 시기구분(사회의 현대로의 전환)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중국 근현대 사회 변천의 시기구분에 대한 관념사적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모두 『관념사 연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논증을 알고자 한다면 이 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된 대다수 사료의 출처 또한 쓰지 않았다.

우리의 연구방법에 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1830~1920년대 후기까지의 중요한 정치 사상사의 1차 자료를 포함하며(신문, 잡지, 문집 및 선교사의 저작 등을 포괄하며, 그중에는 정치, 경제, 군사 및 과학기술 등의 자료도 있다), 일억 이천만 자가 수록되었다(문헌 목록은 본문의 부록을 보라). 이를 근거로 우리는 어떤 키워드가 언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매년 출현하는 빈도 및 만자 당 출현하는 횟수는 어떠한지 등을 정량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통계적 잡음을 걸러내고 각종 관련 어휘의 정량적 통계도 진행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근대성과 관련이 있는 백여 개의 키워드를 고찰하였으며, 열 개의 근대적 관념으로 분류하였다(〈표 1〉).²⁾ 우리가 제기한 사회의 근대로의 전환 단계, 즉 근현대 역사의 시기구분은 이 백여 개의 키워드 및 열 개의 관념의 백 년간의 기원과 변천을 분석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규칙을 찾아낸 이후에야 비로소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³⁾

1) 金觀濤·劉青峰, 2008, 『觀念史研究: 中國現代重要政治術語的形成』, 香港: 香港中文大學當代中國文化研究中心, 총606쪽.

2) 金觀濤·劉青峰, 2008, 附錄2 「百個現代政治術語詞意彙編」, 앞의 책, 480·571쪽 참조.

3) 독자들은 우리의 데이터베이스가 백여 년간의 모든 문헌을 정리한 것도 아닌데, 결론이 신

〈표 1〉 근대성과 관련된 10개 군의 관념

一 이성(理性)

1. 천리(天理) 2. 실리(實理) 3. 자연지리(自然之理) 4. 공리(公理) 5. 공례(公例)
6. 진리(真理) 7. 이성(理性)

二 공공영역(公共領域)

8. 공공(公共) 9. 공의(公議) 10. 공론(公論) 11. 공법(公法) 12. 공민(公民) 13. 국민(國民) 14. 천민(天民) 15. 인민(人民) 16. 입헌(立憲) 17. 헌법(憲法) 18. 헌정(憲政) 19. 자치(自治) 20. 회의(會議) 21. 의회(議會) 22. 의원(議院)

三 권리(權利)

23. 권리(權利) 24. 이권(利權) 25. 자주지리(自主之理) 26. 자주지권(自主之權)
27. 주권(主權) 28. 인권(人權) 29. 공권(公權) 30. 사권(私權) 31. 의무(義務)

四 개인(個人)

32. 개인(個人) 33. 개인주의(個人主義) 34. 소기(小己) 35. 무뢰(無賴) 36. 유니트(么匿)

퇴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에도 결론이 뒤바뀌지 않을지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가 물을 것이다. 열쇠는 다음에 있다. 지난 기간,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는 천천히 확충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선 백여 년간의 가장 중요한 자료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문헌의 중요성을 근거로 이천만 자에서 삼천만 자, 다시 칠천만 자로 확충하였다. 2008년에 이미 일억 이천만 자가 되었다. 우리는 최대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얻은 결론은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확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사실 부록에서 이미 보았듯이, 1830~1920년대 중엽까지, 연구자들이 보고 인용할 수 있었던 중요 문헌은 기본적으로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다. 당연히 이후 데이터베이스의 확충에 따라, 우리가 이 책에서 내렸던 결론은 도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과학적 가설이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한 사람들이 과학적 가설에 빠져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키워드 연구를 통해 그려낸 중국 백여 년간의 역사 시기구분법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것은 사실상 근대의 관념을 표현하는 어휘, 즉 현대 한어의 형성에서 얻어 낸 결론이기 때문이다.

五 사회(社會)

37. 군(群) 38. 군학(群學) 39. 합군(合群) 40. 군중(群衆) 41. 사회(社會) 42. 회(會)
43. 사회(私會) 44. 공회(公會) 45. 사회주의(社會主義) 46. 사회학(社會學)

六 민족국가(民族國家)

47. 천하(天下) 48. 국가(國家) 49. 만국(萬國) 50. 세계(世界) 51. 세기(世紀) 52. 국제(國際)
53. 영토(領土) 54. 민족(民族) 55. 민족주의(民族主義) 56. 제국주의(帝國主義)
57. 민족제국주의(民族帝國主義)

七 민주(民主)

58. 민주(民主) 59. 민정(民政) 60. 민권(民權) 61. 공화(共和) 62. 합중(合衆)

八 경제(經濟)

63. 경세(經世) 64. 경제(經濟) 65. 부강(富強) 66. 생계(生計) 67. 평준(平準) 68. 계학(計學)

九 과학(科學)

69. 과학(科學) 70. 격치(格致) 71. 지식(知識) 72. 상식(常識) 73. 미신(迷信) 74. 기술(技術)
75. 학교(學校) 76. 학당(學堂) 77. 진보(進步) 78. 진화(進化) 79. 생산력(生產力)

十 혁명(革命)

80. 혁명(革命) 81. 개량(改良) 82. 개혁(改革) 83. 반동(反動) 84. 경쟁(競爭) 85. 투쟁(鬪爭)
86. 계급(階級) 87. 평등(平等) 88. 평행(平行) 89. 자유(自由) 90. 독립(獨立)
91. 집산주의(集産主義) 92. 공산주의(共產主義)

당연히 독자는 왜 '전화', '기차', '공원', '회사', '은행' 등의 단어가 아닌 상술한 키워드 및 상응하는 십대 관념을 선택하였는지 의문이 들 것이다. 그것은 근대성의 본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와 관념을 골라야 했기 때문이다. 근대성에는 기본가치, 제도 그리고 사회행동의 세 층차가 있다. 다음 절에서 우리가 선택한 십대 관념, 백여 개의 키워드가 이 세 층차의 변화

를 그려낼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근대적 기물은 상술한 세 영역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고, 근대성과는 필연적인 연계가 없다. 사실상 이 세 영역을 구성하는 각 관념도 또한 비중이 같은 것이 아니며, 핵심 요소와 기본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만 파악하면 나머지는 쉽게 해결되듯, 그것들을 파악해야만 비로소 근대 사상 형성의 전체 과정 및 역사의 시기구분이 드러날 것이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근대적 가치체계의 핵심을 분석해야만 할 것이다.

2. 근대적 가치체계란 무엇인가

근대성이란 근대와 전통을 본질적으로 구별하는 규정성(특징)을 말한다. 정치철학 연구에 따르면 근대 사회는 '개인의 권리', '도구적 이성', '개인의 민족 정체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관념 위에 세워졌다. 근대 사회의 출현이란 이 세 가지 기본 관념의 기원과 보편화 그리고 그것들로 조성된 가치체계가(그중 하나 혹은 다수의 비판 혹은 변형으로 나타난 이데올로기를 포함한다) 정치·경제제도 및 사회적 행동의 정당성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중국 전통사회의 근대적 전환은 이 세 가지 가치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것들과 중국 전통사상의 관계는 어떠하며, 어떻게 사회행동으로 전환되었는지가 반드시 고찰되어야 한다.⁴⁾

'개인의 권리'와 '도구적 이성', 이 양대 관념이 유럽에서 기원한 것은 대략 16세기이며, 17세기에는 정치와 경제제도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다. '개인의 민족 정체성'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며, 18세기에는 민족주의를 배양해 내면서 민족국가 건립의 조류를 야기하였다. 개인의 권리는 도덕과는 다른 정당성이 되었으며(그것은 근대 사회 정치·경제제도의 정당성의 최종 근

4) 金觀濤, 『探究現代社會的起源』(未刊).

거이다), 유명론과 종교개혁이 중세기의 자연법을 재구성한 것에 기원한다. 서양 정치사상사가 이미 이 관념의 기원과정을 정리하였지만, 키워드의 통계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연구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 관념의 기원이 '개인(individual)'으로 사람을 말하던 것과 같은 시기에 생겨난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Individual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으며, 나눌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관념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있었으나, 16세기 이전 서양에서 개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것은 원자이기 때문이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어떤 부분을 떼어내더라도 그것은 모두 개인이 아니다. 중국 전통사회에서 분해의 최종단계는 윤리 관계이며, 서양 봉건사회에서 분해의 최종단계는 신분구분이다. 기사 등급 혹은 어떤 한 계층의 인간과 같은 경우 그들은 모두 개인일 수 없다. 16세기 individual이 '개인'을 지칭하기 시작한 것은 관념상에서 사회유기체의 해체를 상징하며, 또한 개인이 자연법의 담지자가 되었다는 증거이다. 그것을 정치·경제제도의 정당성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회계약론의 형성을 의미한다. 시장경제 및 사유재산권이 궁극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은 관념의 차원에서는 '사회'와 공공영역의 발생이었다. '사회'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을 말하며, 전통사회에서는 궁극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개인의 권리가 정당성의 궁극적 기준이 되어야만 계약에 기초한 사회(시장을 포함하여)의 정당성은 겨우 확고하게 수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한 근대성과 관련 있는 첫 번째 관념과 어휘는 개인의 권리를 대표하는 관념군이다. 예를 들어 '권리와 관계있는 단어', '개인'과 관계있는 단어 및 '사회'와 관계있는 단어, 그리고 '공공영역'과 관계있는 단어 등이 있다.

개인의 권리 관념으로 사회조직의 정당성을 논증할 때, '사회' 이외에 국가 형태와 관계된다. 근대사회는 더 이상 유기체가 아닌 개인 간의 계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건립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동일한 정치 공동체 및 국가주권에 속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바로 근대성

의 또 다른 핵심가치인 '개인의 민족 정체성'이 해결할 문제이다. 이렇게 민족국가의 건립과 관계있는 관념군 및 그에 상응하는 어휘는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 '민족', '천하', '세계', '민족주의' 등을 포함한다. 그 밖에도 '민주', '공화', '입헌', '경제' 등 현대 정치·경제체제의 관념도 포함해야 한다.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바로 베버(M. Weber)가 말한 도구적 이성이다. 근대화는 세속화·이성화이며, 사실상 도구적 이성의 확장이라고 베버는 말하였다. 도구적 이성이란 무엇인가? 전통사회에서 이성은 종교·도덕, 즉 궁극적 관심과 함께 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중세기에서는 이성을 말하지만 그것은 종교 신앙의 일부뿐이었다. 서양의 이성정신에는 하느님의 진리와 과학이 있는데 중세기에 양자는 나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세기 과학연구(이성)는 신학의 시녀였다. 도구적 이성이란 이성과 신앙을 두 개의 간섭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누어 놓는 정신상태를 말한다. 이원론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이성과 궁극적 관심(구원)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그러므로 도구적 이성이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이성은 신앙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규모로 인류의 생활 속에 응용되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이성화를 포괄할 수 있었다. 이런 변화는 17세기에 발생하였다. 그 과정은 마찬가지로 키워드의 의미 변화 속에 흔적을 남겼다.

중세 서양에서는 이성을 나타내는 말로 reason과 ratio의 두 가지 단어가 있었다. reason의 의미는 비교적 넓어서 이유, 이해 그리고 전후 연관적 생각이라는 뜻이 있으며, 프랑스의 고어 reism 혹은 raison, 라틴어의 rationem ('생각하다'의 과거분사의 어근)에서 왔다. ratio의 의미는 비교적 명확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비례'에서 온 것으로, 사람이 운용하는 개념, 판단과 추리 능력을 말하며, 감각, 의지, 정서 등의 심리적 활동과는 구별된다.⁵⁾ 17세기가 되면서 ratio와 reason에 미묘한 차이가 출현한다. ratio는 계시적 진리를 믿

5) 馮契 主編, 1992, 『哲學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지 않는 이성주의만을 가리키게 되었다.⁶⁾ 이 이성주의가 바로 도구적 이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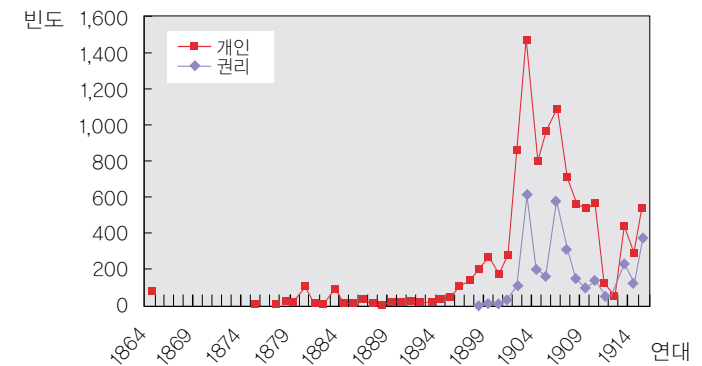
그래서 필자가 선택한 다른 단어군은 이성 관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공리', '진리', '과학', '격치'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중국의 도구적 이성의 기원과 변천을 밝힐 것이다. 근대성을 대표하는 기본 가치의 관념군 이외에도 관념체계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찾고, 근대적 관념과 관념체계의 형성 이후 그것들이 어떻게 '공산주의', '개량', '혁명' 등과 같이 사회행동을 개조하는 키워드로 전화되었는지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총괄해 보면 그런 모든 관념군과 키워드가 모여서 <표 1>이 만들어졌다.

3. 중국에서 근대성을 대표하는 핵심 관념의 기원

근대성은 서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 사회의 근대로의 전환은 서양의 충격 속에서 일어났으며, 그래서 키워드들이 표현하는 관념을 연구할 때, 우선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것들 본래가 표현하는 중국 문화와 사회의 관념이 무엇인지, 원래는 근대적 요소가 없었는지, 그것들은 언제 외래 관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그것들의 중국어 속에서의 의미와 서양의 근대적 관념을 표현할 때의 의미가 완전히 같은지, 언제 보편화되었는지 하는 것들이다. 당연히 그것들이 중국으로 전해져 들어오던 과정, 그것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사회행동으로 전화되었는가(중요한 역사적 사건과의 관계를 포함) 등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표 1>에서 열거한 십대 관념 연구에서는 놀랄 만한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1895년이 하나의 분수령이었으며, 서양에만 있었던 근대적 관념들이 모두 1895년(혹은 1898~1900)에 갑자기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1]은

데이터베이스 통계로 얻은 '권리'와 '개인'라는 두 키워드의 출현횟수를 말한다. '권리'는 1895년 이전에는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오히려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1900년 이후에야 개인은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이것은 '개인'이라는 키워드가 1895년 이후 출현한다는 사실과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권리' 관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관념 또한 그렇다.⁷⁾ 즉 각각 현대 관념을 표현하는 키워드 가운데 중국이 본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의미는 모두 1895년 이후에 출현한 것이다. 사상사 학자 장하오(張灝)는 청일 전쟁 패배를 중국 시대전환의 시작으로 보았는데,⁸⁾ 상술한 통계는 바로 이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림 1] '개인', '권리'의 빈도 통계(1864~1915)

이전에 중국에 서양의 개인과 관련한 권리 관념이 없었다면, 어떻게 서양의 권리 관념을 수용하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ights를 번역하는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 우선 왜 '권리'라는 말로 rights를 번역하였을까? '권리'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일찍부터 사용되었다. 한대(漢代) 『염철론

6) Raymond Williams, 2003, 『關鍵詞: 文化與社會的詞彙』, 臺北: 巨流圖書公司, 314쪽.

7) 金觀濤·劉青峰, 2008, 「近代中國權利觀念的起源和演變」, 앞의 책, 127쪽.

8) 張灝, 1994, 「中國近代思想史的轉型時代」, 『二十一世紀』總52期.

『鹽鐵論』에서 권리를 말하였고, 순자(荀子) 또한 권리를 말하였다. 중국어 속에서 ‘권리’에는 저울(權衡)의 의미가 있고, 또한 권력과 이익의 뜻도 있다. 그러나 서양의 rights에는 매우 강한 당위적 ‘도덕’의식이 있다(정당하다는 뜻). 때문에 중국의 권리관은 서양의 rights와 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중국은 언제부터 ‘권리’라는 단어로 서양의 rights를 번역하였을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895년 이전, ‘권리’라는 단어의 사용횟수는 비록 많지 않지만 이미 이 단어로 rights를 번역하였다. 뜻이 분명하게 다른데도 왜 그렇게 번역한 것일까?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옌푸(嚴復)였다. 1902년 『군기권계론(群己權界論)』을 번역할 때, 그는 권력과 이익을 의미하는 ‘권리’로 정당·당연을 의미하는 서양의 rights에 대응시키는 것은 패도를 왕도로 번역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권리’로 rights를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옌푸는 『군기권계론』에서 ‘직(直)’이라는 다른 번역어를 만들었다.⁹⁾ 우리는 공자가 말한 ‘직(直)’에는 분명 도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옌푸의 이 번역어는 매우 정확하였지만 아쉽게도 그의 번역은 중국인에게 선택되지 못하였다. 사실상 옌푸 이전 반세기 동안 중국인은 이미 ‘권리’로 rights를 번역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옌푸도 『천연론(天演論)』에서는 습관에 따라서 ‘권리’로 rights를 번역했다.

그렇다면 중국인은 왜 ‘권리’로 rights를 번역하였는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컴퓨터로 ‘권리’가 쓰인 모든 예문을 찾아, 언제부터 ‘권리’가 서양의 rights와 대응하였는지, 그 의미는 또한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1864년 이전에는 권리가 결코 서양의 관념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864년 『만국공법(萬國公法)』이 출판되었는데, 처음으로 ‘권리’라는 단어로 서양의 rights를 번역하였다. 사상사 연구에서 『만국공법』은 국제법 교과서로서 표면상 사상사와의 관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던 책이었다. 이 책의 영문판은 1830년대에 나왔고 이후 빠르게 각국의 문자로 번역되었다. 텐진조약(天津條約)으로 중국이 국제체제에 편입되었는데, 1864년 이 책도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만국공법』은 마틴(W. A. Martin, 丁韞良)이 번역한 것으로, 몇몇 문인의 윤색을 거쳤다. 총리아문에서는 처음 이 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마침 당시 프로이센과 덴마크 간에 교전이 있었는데, 프로이센의 영사가 중국의 해역에서 덴마크의 상선을 억류하였다. 중국의 관원은 『만국공법』에 의거해 프로이센이 제3국에서 교전국의 상선을 억류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고는 프로이센인의 눈치를 슬며시 보았다. 프로이센인은 고분고분 배를 돌려주고 사과를 하였다.¹⁰⁾ 청 정부는 이 책이 매우 쓸모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총리아문에서 300권을 인쇄하여 서양과 교류할 때 참고하라고 각 아문의 관원에게 나눠주었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권리, 주권, 민주 등과 같이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관념들이 모두 이 책에서 기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또한 왜 ‘권리’로 서양 현대가치의 핵심 관념인 rights를 번역할 수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서양 근대의 ‘개인의 권리’ 관념이 유명론의 자연법에 대한 재구성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권리 관념은 줄곧 합법적 권력과 이익의 이중 함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rights의 정당성의 의미는 처음부터 법률적 정의에서 기원한다. 근대성이 발원한 이후 ‘권리’에서 개인의 자주가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의미의 핵심이 되었다. 중국 전통의 권리 개념은 춘추대대에 부합하는 국가 권력과 이익으로 표현할 수 있다. 비록 국가 권력과

10) 『同治朝籌辦夷務始末』 卷26에 이 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다. “중국 해안에서 타국의 배를 구류한 것은 곧 중국의 권리를 분명히 침탈한 것이니, 중국에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렸습니다. … 분쟁의 원인은 덴마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세에 있으니, 이를 핑계로 오만함을 피우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중국의 영해이며, 공해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신 등은 그들이 교활하게 변명하며 책임을 미루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박을 억류한 곳은 중국이 관할하는 영해이므로 유럽이 정한 군법으로 중국을 강제할 수 없음을 고하였습니다.”

9) 嚴復, 1986, 『與梁啟超書(三)』, 『嚴復集』 第三冊, 北京: 中華書局, 519쪽.

이익이 정당성의 근거라는 이해에 대해서는 중국과 서양이 다르지만, ‘권리’와 rights 관념에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만국공법』을 국제법 교과서로 삼았을 때, rights 관념에는 이미 개인의 자주성이 있었지만, 또한 국가의 자주성 및 합법적 국가 권력과 이익 등에 대한 서술도 있었다. 그렇게 중국인이 국제법의 필요에서 ‘권리’로 rights를 번역할 때, 개인의 자주성을 제거해버렸다. 『만국공법』의 번역에서 우리들은 당시 중국의 서양 근대의 관념에 대한 수용은 일종의 선택적 수용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권리 관념뿐만 아니라 주권과 민주의 관념도 또한 그러하다.

선택적 수용이란 내가 쓰던 것, 즉 중국인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관념 체계를 통한 ‘격의(格義)’의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관념 체계는 곧 유학을 정통으로 하는 전통사상이었다. 이 점은 『만국공법』의 번역에서 명쾌하게 표현되었다. 『만국공법』 원서는 매우 두꺼워서 수백 페이지나 되지만, 중국어판은 매우 얇아서 대략 10만 자 정도이다. 중국어판 번역문 서문에서는 생략한 부분을 빼고는 원문에 따라 정확하게 번역하였다고 재삼 강조하였다. 확실히 번역은 매우 정확하였지만, 원서에서 법리나 인권을 말하는 부분은 당시 중국인이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모두 생략하였다는 문제가 있었다. 대체로 국가 간의 교전이나, 국제 관계의 대처와 같은 역사적인 것들은 번역이 간단명료하며 정확하였다. 서양의 자연법은 국제법 성립의 전제였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성법(性法)’으로 번역하였다. ‘성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주이학으로 자연법을 이해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국제법은 유가의 이데올로기와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며, 경세치용의 만국관 속에 편입된 것이다. 유학 혹은 전통문화에 익숙한 개념으로 서양 관념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이니, 그것이 1895년 서양과 모든 외래 관념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방법이었다.

그렇다면 중국의 현대(morden)는 1895년 시작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결코 근대적 관념이 없었고 근대적 관념의 지배에 의한 사회행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시 양무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의 근대로의 전환은 결

코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이전의 역사시기를 현대(혹은 근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1840년 이후를 근대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서양의 충격이 있었던 혹은 중화제국이 국제법의 세계체제에 들어섰던 시기이기 때문이며, 중국 자체로 말하면 여전히 전통사회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근대’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면 거기에는 근대의 특수한 함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 사회와 유학 내부에 모종의 변화가 발생했고, 서양 근대사상과 친화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만들어 냈으며, 결국 서양과의 접촉 과정에서 유학이 어떤 근대적 관념들(예를 들어 국제법)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으며, 전 지구적 국제체제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런 특수한 함의를 갖는 ‘근대(pre-morden)’는 1860년대부터 혹은 1840년대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만약 유학이 변화하는 가운데 만들어 냈던 모종의 개별적이고 사회적 영향이 없었던 사상들까지(왕부지의 민족주의 등) 고려한다면, 근대는 명 말~청 초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4. 선택적 수용에서 학습까지

1895년 청일전쟁의 패전이 근대의 시작인 까닭은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중국인의 관념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사대부는 유학으로 서양의 현대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미몽에서 깨어났다. 유가 윤리가 정치·경제제도의 정당성의 기초가 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유학과 중국 전통문화로써 서양의 근대적 관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는 끝난 것이다. 중국에서 근대적 관념은 두 가지 기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는 학습의 기제이고, 다른 하나는 유가 도덕에 대한 반발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관념(평등·세계대동 등)이 서양의 근대적 가치를 비판한 새로운 관념(공산주의·무정부주의 등)을 수용하는 기제이다. 데이터베이스 방법의 운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두 과정을 매우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도덕적 가치의 반발이 새로운

관념을 창조하는 양상은 1895~1899년에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5·4운동 이전에는 줄곧 비주류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학습 과정은 1900년부터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그래도 서로 중첩하는 부분이 있는 권리와는 달리 중국에는 원래 없었던 서양의 어떤 관념이라면, 이런 관념은 선택적 수용을 통해서 중국어의 세계로 들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1895년 이전에는 그런 관념들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그것들은 학습을 통해야만 비로소 중국어의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개인 관념은 전형적인 예이다. 중국어에 ‘개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 자신으로, 대부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말하며, 시(詩) 혹은 사(詞)에나 나타난다. 중국 전통문화 속의 ‘개인’과 서양의 individual은 ‘권리’와는 달리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다. 그러므로 1895년 이전, 즉 중국이 선택적으로 서양의 관념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근대적 개인 관념은 중국인에게 이해될 수 없었다. 서양의 저작을 번역할 때 ‘개인’으로 번역한 사례는 그때까지는 없었고, 문맥에 근거해서 ‘인인(人人)’ 아니면 ‘인(人)’으로 번역하였다. [그림 1]을 보면 ‘개인’이라는 단어는 1899년 이전에는(데이터베이스에) 없었고, 1900년 전 후에야 출현하였다. ‘개인’이라는 번역어의 의미는 처음에는 불명확하였고, 서양의 individual에 대응되지 않았지만 개체의식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이 진정으로 서양의 individual에 대응되기 시작한 것은 1902년, 량치차오로부터 시작되었다.

량치차오(梁啟超)는 저서에서 ‘국가의 주권은 개인에게 있다’는 문장의 ‘개인’이라는 단어 아래에 ‘한 사람(一箇人)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¹¹⁾ 데이터베이스 연구의 중요한 부분은 신관념을 학습하는 기제를 밝혔다는 것이다. 예문분석에서 개인 관념은 대량의 권리에 관한 서술 속에서 출현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즉, 권리의 주체는 더 이상 국가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단 권리의 주체가 개체화되면서 개인 관념 또한 없을 수 없었다. 많은 서술

이 개인에게 권리가 없다면 국가에 어떻게 권리가 있겠는가를 강조하였다. 개인 관념의 학습은 주권의 개체화와 사회진화론의 추앙이 매개가 된 것이다. [그림 1]에서 ‘권리’와 ‘개인’ 양 곡선의 관계는 상술한 관점에 증거를 제공하였다. 1906년 이전, 양 곡선의 추세가 완전히 일치하였다는 사실은 개인과 관련된 구문 대다수가 권리에 대한 논술에서 출현하였다는 것이며, 권리에 관한 논술에서 국가 권리라는 단순한 어구는 더 이상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개인 권리와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양 곡선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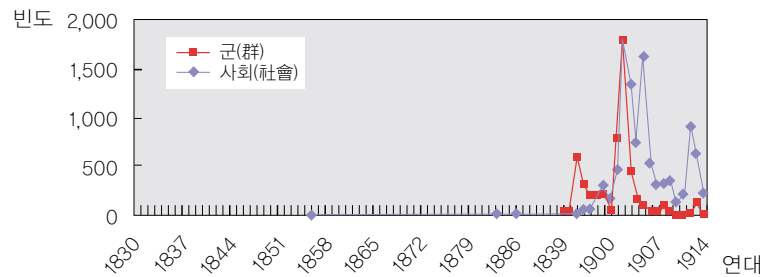
개인의 권리가 들어오면서 서양의 사회 관념에 대한 학습도 빠르게 전개되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는 서양의 근대적 관념이며, 그 의미는 사회를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보는 것이다. 사회라는 단어 society는 고대 그리스에는 없었고 고대 로마에 있었던 것이지만,¹²⁾ 궁극적 정당성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아렌트(H. Arendt)는 현대의 흥기는 사회의 흥기이며, 시장사회와 공공 공간이 모두 그 예라고 말했다. 서양의 사회 관념은 어떻게 중국에 들어온 것일까? 중국 전통사회에서도 ‘사회’라는 단어는 이미 있었고, 서양의 society와 의미가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명청시기, 대부분은 민간의 비밀결사를 말하였으며, 유가의 이데올로기로 볼 때 정당성을 결핍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1895년 이전 서양 관념의 선택적 수용의 시기에 society를 ‘사회’로 번역한 경우는 없었고(반대로 일본은 가능했다), 주로 이용했던 번역어는 ‘회(會)’라는 단어였다. 예를 들어 1880년대 출판된, 서양의 정치경제학 교과서 중 가장 이른 중역본이었던 『좌치추언(佐治芻言)』에는 개인이 사회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있다. 번역에서는 society를 ‘회(會)’로 말했으니, 중성적 소개인 셈이다.

1895년에 유학은 의문의 대상이 되었고, society의 정당성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의 사대부는 ‘회(會)’가 아니라 ‘군(群)’으로 society를 번

11) 梁啟超, 1978, 『論政府與人民之權限』, 『飲冰室文集之十』 第四册, 臺北: 中華書局, 1쪽.

12) 阿倫特(Hannah Arendt), 1999, 『人的條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쪽.

역하였다. 왜 ‘군(群)’을 사용하였을까? 군은 중국어에서 의미가 매우 다양하며, 군체(群體)에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 ‘군체(群體)’로 society를 번역하는 것은 ‘회(會)’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합당하지 않다. 순자에 ‘임금은 잘 무리지어는 사람이다(君者, 善群也)’¹³⁾라고 하였다. 즉 ‘사람을 잘 무리지어는 것(사람을 단결시키기(團結人))’을 황제의 직무로 보았다. 개인의 정당성이 확립되기 이전, 중국 사대부는 금문경학이 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처럼 유학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society를 ‘군(群)’으로 번역하던 것이 청일전쟁 이후에 성행하였다는 사실은 사대부가 society의 정당성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society의 기초는 개인이 아니었다. 당시 중국인은 ‘군(群)’으로 서양의 사회를 연구하였으며, 사회학을 ‘군학(群學)’이라고 하였다.



[그림 2] ‘군(群)’, ‘사회(社會)’의 사용빈도(1830~1915)

일단 개인의 권리 개념이 확립되고 나면, 사회의 정당성은 더 이상 순자의 말로 이해할 필요가 없었다. society를 ‘군(群)’으로 해석하던 것도 ‘사회’와 비교할 수 없었다. ‘군’은 신속하게 ‘사회’로 대체되었다. 데이터베이스는 ‘사회’가 ‘군’을 초과하였던 시점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그림 2]의 통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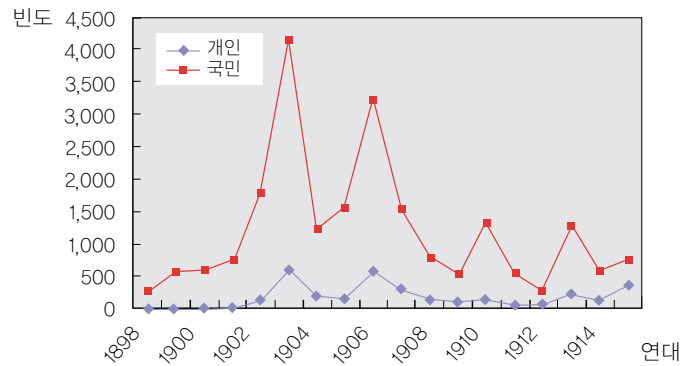
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수 있다. 1902년 양자는 비슷하였고, 그 이전 ‘사회’의 사용은 보편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1903년이 되면서 ‘군’은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그 이후 ‘사회’는 ‘군’을 압도하였다.¹⁴⁾ 이 대체 과정은 개인의 권리 개념의 확립과 걸음을 같이하고 있으며, 명확하게 개인의 권리와 사회계약론이 사회관 형성에 대하여 중요함을 표명하고 있다. 사실상 사회 개념의 보급은 그와 관련이 있는 사회행동의 광범위한 전개를 불러왔으며, 청 조정의 상공업에 대한 장려, 상회(商會)의 광범위한 성립, 신사의 공공영역 형성 등을 포함하였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은 개인의 권리 개념과 사회 개념이 일으킨 변화로 다른 부수적인 근대적 개념의 보편화와 사회행동으로의 전화 과정을 개괄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권리를 이용해서 사회제도의 정당성을 논증할 때, 근대적 시장경제가 공공영역을 확립한 것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국가의 건립이다. 그것은 기본 관념상에 있어서 국민의 출현을 반영한다. 국민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정확한 함의는 개인이 민족국가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 도입의 전제는 개인 개념의 존재이다. ‘국민’이란 말은 『국어(國語)』에 이미 존재하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아니다. 개인들이 (공민) 민족국가의 구성원이 될 때, ‘국민’이란 단어는 보편화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민’이란 단어가 출현한 빈도의 의미 변화 과정을 검색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이 ‘어떤 나라 사람(某國民人)’으로부터 왔으며, 이 단어가 『해국도지(海國圖誌)』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에는 외국인만을 ‘국민’이라고 하였고 중국인은 ‘국민’이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은 근본적으로 민족국가가 아니었고, 백성도 민족국가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895년이 되어서야 ‘국민’은 중국인을 부르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00년 이후 중국은 민족국가를

13) 『荀子』, 「王制」卷五, 7~8쪽.

14) 金觀濤·劉青峰, 2008, 「從‘群’到‘社會’, ‘社會主義’: 中國近代公共領域變遷的思想史研究」, 앞의 책, 190쪽.

세우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현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국민’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개인’과 완전히 같다는 것이다(그림 3). 데이터베이스의 용례분석으로, 많은 문장에서 ‘국민’을 말할 때 ‘개인’도 함께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¹⁵⁾ ‘국민’, ‘개인’, ‘권리’의 관념이 1900~1906년의 시기에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런 근대성의 핵심 관념들의 상관성을 충분히 형성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것들은 분명 학습을 통해서 함께 들어온 것이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통계분석이 없이는 발견하기 매우 힘든 부분이다.



[그림 3] '개인', '국민'의 사용빈도(1898~1915)

여기서 또한 ‘민족’과 ‘민족주의’ 두 관념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 같다. 사상사 연구에서 기존의 수많은 학자들이 모두 청일전쟁 이전에는 중국어에 ‘민족’이란 말이 없었으며, ‘민족’이라는 명사는 절대적으로 현대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으

로 보면 ‘민족’이라는 단어는 1830년 이후 불시에 출현하였으며, 의미도 오늘날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중국이 진정으로 현대 민족국가의 길을 걷고 있음을 대표하는 단어는 ‘민족주의’이다. 이 단어는 1900년 이후 비로소 출현한 것이며, 그전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 또한 시작되면서부터 그것은 제국주의적 입장과 함께하였다. 이로써, 민족과 유관한 관념이 전입되었더라도, 1895년(특히, 1900) 이후 학습단계가 선택적 수용의 단계를 대체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5. 독특한 재구성 과정

중국 현대사의 시기구분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중국 역사가가 근대 속에서 현대를 구분해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 역사가들은 일반적으로 신해혁명 이후를 현대라고 칭하고 대륙 역사교과서는 5·4운동을 현대의 시작으로 본다. 현대의 기점은 비록 다르지만 현대와 근대를 인식하는 것은 일치한다. 서양에서 근대와 현대는 동일한 것이다. 일본은 메이지 이후를 통칭하여 근대라고 하고 근대화는 현대화와 같은 것이다. 그것들은 현대 가치체계의 형성이자, 정치·경제제도의 정당성의 기초가 되었으며, 민족국가를 건립하였다. 표면적으로 볼 때 중국 근현대사가 반드시 현대와 근대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역사가관이 거기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실 관념사 연구에서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근대 관념의 의미의 통계분석을 통해 중국에는 확실하게 두 종류의 ‘근대’적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앞서 우리는 1895년 이후를 중국의 현대라고 하였고, 그것은 서양 혹은 일본이 ‘근대’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근대’와 ‘현대’의 구별이 없다면, 중국에는 하나의 현대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1895년 이후 학습을 통하여 세워진 근대적 관념(가치)은 신문화운동 속에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재구성이다. 재구성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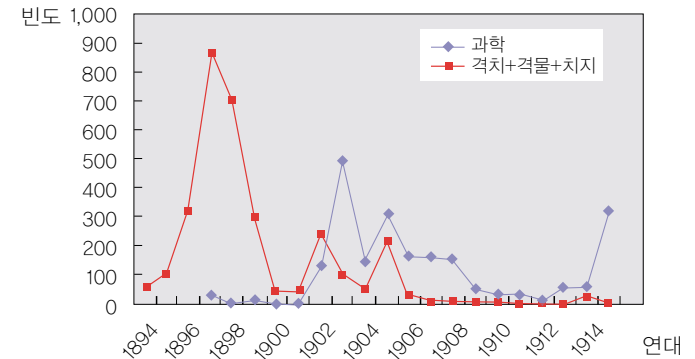
15) 金觀濤·劉青峰, 2008, 「論儒學式公共空間: 中國社會現代轉型的思想史研究」, 앞의 책, 82쪽.

후의 근대적 가치와 학습을 통해 받아들인 관념은 다르다. 즉 중국은 서양이나 일본과는 달리 근대와는 다른 하나의 현대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1895년 이후를 현대라고 한다면 신문화운동(1915~1924)은 중국의 당대를 열었다. 우리는 신문화운동 이후의 근대적 사상을 당대 관념이라고 하며, '당대'라는 단어는 자신과 오늘날의 관념이 같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신문화운동 이전 20년간 학습을 통하여 들어온 근대적 관념과 구별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당대 관념과 가치는 근대적 관념의 가치와 다른 것이다. 그것은 중국 사회 전환의 거시적 연구, 즉 근현대사 시기구분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과학 관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대 과학 관념의 본질은 도구적 이성이며, 과학은 궁극적 관심과 무관하다. 명 말부터 서양과학은 '격치(格致)로 번역되었다. '격치'는 유가의 수신팔조목 가운데 앞의 양 조목인 '격물(格物)'과 '치지(致知)'의 약칭이다. 그것으로 서양의 science를 번역한 것이다. 유학(정주이학)이 서양 관념을 선택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매우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당시 중국인이 서양 과학에 보인 흥미는, 최종 목표가 천리를 깨닫는 수신에 있으며, 유가 도덕과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은 중국인의 궁극적 관심이며, 그것은 전통사회 중국인의 이성정신이 결코 도구적 이성이 아님을 말한다.

청일전쟁 이후, 중국인은 '과학'으로 서양의 science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과학'이라는 단어는 중국어에서 원래 분과의 학문을 의미하며, 도덕과의 관계는 격치만큼 밀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과학으로 science를 번역한 것은 궁극의 관심과 이성이 이원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언제 '과학'이 '격치'를 대체하였을까?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는 답을 제공한다. '과학'은 1897년 이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03년 이후 '격치'를 초월하였다(그림 4).¹⁶⁾ 이것은 학습단계에서 베버가 말한 '도구적

이성'이 중국에 들어왔음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 교체 과정은 앞에서 말했던 기타 관념의 변천 양식과 동일하다.



[그림 4] '과학'이 '격치'를 대체하는 과정(1894~1915)

아주 흥미롭게도 신문화운동 속에서 과학 관념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과학은 다시 한 번 인생관의 기초가 되었다. 지식인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도덕을 만들었으며, 또한 과학은 다시금 역사 속에서 격치의 기능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상사 연구자는 그것을 과학주의라고 했으며, 신문화운동에서의 과학주의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이것은 신문화운동 이전, 학습을 통하여 들어온 도구적 이성에 재구성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서양의 과학 관념과는 다른 중국식의 과학관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도구적 이성은 근대성의 3대 기초 가운데 하나이며, 그것의 재구성은 그것과 관련된 일련의 현대 관념 모두에 재구성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정치·사회제도와 행동의 정당성 논증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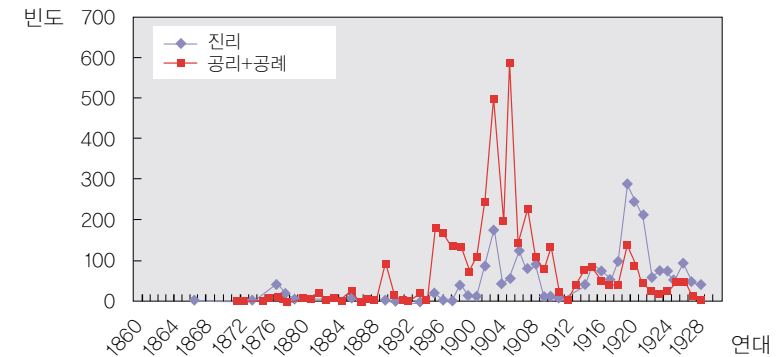
송명이학 때부터 유가 윤리는 '리(理)'로 표현되었다. 정치·사회제도 및 행동에 대한 유가의 논증은 '리'의 논설이었다. 사람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16) 金觀濤·劉青峰, 2008, 「從'格物致知'到'科學', '生產力'—知識體系和文化關係的思想史研究」, 앞의 책, 335쪽.

찾을 때 가장 애용되는 관념은 공리(公理)가 아니라 바로 천리(실리)였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천리와 공리는 어떻게 다른가? ‘공리’에는 보편적 도리와 공공영역의 도리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가정 이외의 영역은 공공의 영역이며, 그 영역의 정당성의 이치는 바로 공리이다. 유가 윤리는 충효를 같은 형식으로 주장하여,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이치를 서로 소통시키기 때문에 공공영역의 이치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고대 지식인은 ‘공리’라는 말을 사용하여 유가의 윤리를 말하려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효는 최고의 보편 이치이지만 사적 영역에 속해 있으며, 천리이지만 공적 영역의 이치는 아니다. 24사를 검색해 보면 ‘공리’는 매우 적고, 그것도 사람 이름이다.

그렇다면 ‘공리’는 언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가? 데이터베이스 통계에 의하면 그것은 1895년 이후이며, [그림 5] 공공영역의 이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도구적 이성과 함께 들어왔다. 사실상 20년(1895~1914)간, 도구적 이성이 중국에서 확립되었던 것은 충효의 분열, 궁극적인 관심(유가 윤리)의 사적 영역으로의 축소에 따른다. 이로부터 유가 윤리는 가족 내부의 이치로 인식되었고, 다만 중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중국 문화 정체성의 핵심).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생존경쟁을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의회정치를 말하기 때문에 공리인 것이다. 량치차오가 말한 것처럼 공덕(公德)은 사덕(私德)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공리는 사회·정치제도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었으며, 그것은 중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개인의 권리를 대표하는 서양의 계약론과 민족주의의 유입은 정치·사회제도의 정당성의 기초에 거대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 상태는 결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였으며, 신문화운동 가운데 정당성의 논증 방식에 재구성이 일어났다. 공리는 진리로 대체되었다.

5·4운동 때 ‘공리가 강권을 이겼다(公理戰勝強權)’라고 했던 유명한 구호가 오늘날 그다지 전해지지 않는 것은 ‘공리’가 단지 수학의 명사이며, 사회제도 및 행동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적



[그림 5] ‘공리’+‘공례’ 및 ‘진리’의 사용빈도(1860~1930)

도의 정당성 논증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진리’이다. 1980년대 개혁개방론이 근거로 했던 대논쟁은 바로 진리의 기준에 대한 논쟁이었고, 이것은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진리와 공리는 어떻게 다른가? 공리는 공적 영역의 도리일 뿐이며, 진리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 유효한 도리이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집안의 두 사돈 간의 싸움에서조차 ‘진리’를 말하였다. ‘진리’는 불교에서 온 말로 진실한 이치를 말하며, 공과 사의 구분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언제 진리가 공리를 대체하였는가?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로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컴퓨터의 통계를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공리’, ‘공례’, ‘진리’의 시기별 용법을 모두 잡아내 분석할 수 있다. [그림 5]의 통계는 그 교체가 신문화운동 중간에 발생하였음을 매우 분명하게 말한다.¹⁷⁾ 5·4운동 이후에 ‘진리’가 부각되어 중국인이 정당성을 말하고 과학이성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었으며, ‘공리’는 제도의 정당성 논증에서 퇴출되었다. 언어의 배후에 있어서 사유 방식의 변화로 중국인은

17) 金觀濤·劉青峰, 2008, 「‘天理’, ‘公理’和‘真理’—國文化合理性論證以及正當性標準的思想史研究, 앞의 책, 62쪽.

다시금 공적 영역/사적 영역의 이치가 소통된 구조로 되돌아갔다.

앞의 분석에서 우리는 사회행동의 정당성 논증의 구조가 중국 근현대 역사 가운데 3단계의 변화를 드러냈음을 볼 수 있다. 근대(近代)는 전통과 마찬가지로 '전통의 외래 관념에 대한 선택적 수용'의 제1단계에 속한다. 1895~1915년은 '학습'의 제2단계(현대(現代))로서, 중국이 열심히 서양을 학습하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공적 영역의 이치가 부각되었던 시기이다. 그 시기 정당성 논증의 구성은 가장 서양에 접근한다. 신문화운동, 곧 재구성으로서의 제3단계(당대(當代))가 시작되었다. 중국인의 사상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다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치는 소통되어 합병되었다. 5·4운동 이후, 당대의 독특한 논증 구성이 형성되었다. 이로부터 현대 이성의 형성과 비슷한 중국의 당대 정당성 논증의 구성 또한 서술한 3단계를 경과하면서 형성된 것임을 볼 수 있다.

6. 새로운 시대구분과 사관: 근대로의 전환은 이미 완성되었나

필자는 여기서 반드시 신문화운동의 근대적 관념 재구성이 보편적이고 광범위했음을 강조한다. 도구적 이성과 관련있는 관념군뿐만 아니라, 근대성의 다른 두 기초—개인의 권리와 민족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관념군 또한 그러했다. 모든 근대적 관념은 재구성되었다.

오늘날 중국인은 종종 권리와 권력을 혼동하는데, 그것은 5·4운동 이후 권리 관념이 재구성되어 다시금 서양의 rights와 거리가 생기면서 의무를 다해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권리는 계급권력과 이익이며, 더 이상 사회제도 정당성의 궁극적 기준이 될 수 없었다. 개인주의 또한 부정되었으며, 권리를 가진 개인은 상식적인 개인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회 관념 또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이는 심지어 '사회'라는 단어의 의미에서도 볼 수 있다. 5·4운동 이전의 20년간 '사회'에는

오늘날의 의미와 '협회'라는 뜻의 두 가지 의미가 있었으며, 그것은 서양의 society와 일치한다. 5·4운동 이후, 재구성을 겪은 사회 관념에 이미 '협회'의 의미는 사라졌다.

민족주의에도 재구성이 나타났다. 신문화운동 초기 반유가운동의 전개에 따라 세계주의가 성행하였다. 5·4운동 이후 문화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에 의해 대체되었고, 중화민족 관념이 형성되었다. 근대성의 기초가 되는 3대 관념이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른 관념들도 그렇게 되었다. 본문에서 일일이 논증할 수는 없지만, 이 3단계의 변천은 이처럼 보편화되었고, 심지어 현대 중국어의 형성에도 흔적을 남겼다. 문언문이 백화문으로 변하는 과정도 이 3단계를 거쳤고, 심지어 중국어 특유의 외래어 번역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다.

언어학 연구자들은, 외래 관념의 번역에서 다른 문명권이 음역을 취하는데 반해서 현대 중국어는 보통 중국어에 원래 있었던 단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게다가 1895년 이전에는 종종 원래 있었던 중국어 단어 하나가 다수의 외래 관념에 대응하기도 하였다. 1895년 이후, 상황은 바뀌어서, 보편적으로 다수의 중국어 단어를 하나의 외래 관념에 대응시키는 현상이 나타나, 신명사가 범람하였다. 그러나 신문화운동 속에서 외래 관념은 더 이상 다수의 단어로 표현되지 않았다. 이로써 백화문은 문언문을 대체하였다.

왜 그런 방식으로 번역 과정이 변천하였는가? 그것은 외래 관념 수용 3단계의 제약 결과이다. 제1단계에서 그 배후 기제는 외래 관념에 대한 전통 관념의 선택적 수용이었기 때문에, 중국인 대다수가 음역이 아니라 중국어의 기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외래 관념 가운데 중국어에 원래 없었던 의미는 격의의 결과 한 개의 단어가 각각 단일한 의미를 가진 여러 관념들에 대응하게 된다. '권리'는 법률적 의미의 특권과 rights, '회'는 집회와 society, '민주'는 democracy와 republic, '격치'는 science와 technology 등을 번역하였다. 학습단계에 이르러 외래 관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로 그 관념의 다른 의미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다수의 단어로

하나의 관념을 번역하기에 이르러 신명사가 범람하게 되었다. 사실상 '신명사' 이 단어 자체는 제2단계에서 출현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의 현대 관념에 다수의 번역어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한 시기에 발생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라는 단어로 individual을 번역할 때, 또한 '獨'이나, Unit를 의미하는 '유니트(么匪)', 개인의 독립을 의미하는 '무뢰(無賴)'('무뢰'는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는 것) 등의 많은 신명사가 출현했다. rights가 권리로 번역되는 외에도 '직(直)'과 '민직(民直)'으로 번역되었고, society도 '군', '사회' 등 다수의 단어에 대응하였다. economy 또한 그렇게 '경제(經濟)', '생계(生計)', '이재(理財)', '식화(食貨)', '평준(平準)' 등 다수의 번역어가 출현하였다. 재구성의 단계를 거치면서 근대적 관념은 당대 관념으로 바뀌었고, 다수의 명사가 하나의 의미에 대응하는 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5·4운동 이후 번역어는 고정되었고, 현대 중국어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필자의 관념사 연구에 근거해서 도출된 '근대(pre-morden)', '현대(morden)' 및 '당대(contemporary)'의 시기구분은 현대 중국어 단어 형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극도의 포괄성을 지닌다.

1895년 이전은 근대로 자리매김하는데 그 의미는 전통사회의 근대로의 전환이라는 뜻의 '근대'가 아니며, 중국의 전통사상으로 서양 현대 관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던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사회행동에 있어서 서양에 대한 학습 내용은 유학의 경제치용에 편입되었고, 국제법은 성법(性法)으로 간주되었다. 그 시기는 길게는 명 말~청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짧게는 1840년, 심지어는 1860년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그것을 중국 사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제도와 문화가 불변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세계화 편입 단계라고 말한다.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중국의 '현대'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환시대로, 일본의 '근대'에 대한 정의에 해당한다. 청일전쟁을 역사의 분수령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역사적 대사건이 중국인의 기본 관념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그 이후, 사람들은 유학이 서양의 세계화

충격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서양 근대적 관념의 학습단계가 시작되었다. 학습기제의 주류에서는 유가 윤리는 가족 내부로 축소되어 들어갔고 공공영역에서 서양의 근대적 관념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비주류의 학습기제는 반역적 가치(혁명, 유토피아)가 근대성을 비판하는 서양의 가치 및 사상(사회주의, 공산주의)과 친화성을 가진다는 점이였다. 1900년 의화단 운동(경자사변) 이후 주류의 학습기제는 가장 보편적인 사회행동으로 바뀌었다. 정치영역에서는 헌정의 개혁이 시작되었고 신사의 공공영역은 발전하였다. 근대 민족국가의 건립 과정에서는 두 입헌주체의 충돌이 출현하였고, 왕권은 전복되었다.民国 첫해 서양의 사회제도가 전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단계에서 경제의 근대적 전환은 중국이 겪은 첫 경제 근대화의 절정이였다. 이 과정은 1915년 사회통합의 위기에서 끝이 났다.

신문화운동은 중국의 당대를 열었다. 여기서 '당대(當代)'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신문화운동이 학습으로 들어온 근대적 현대 관념에 대해 재구성을 진행하여 중국식 근대적 관념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단계에서 성행하였던 관념은 기본적으로 오늘날과 같으며, 현 중국인은 여전히 5·4운동 이후 재구성된 세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당대 관념이라고 말한다. 당대 관념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고 이데올로기의 교체를 만들어 냈으며, 아울러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가 통합되고 당국(黨國)제도가 건립되고 민족국가의 재건이 실현되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사회개조의 행동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국공내전 및 다른 사회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이 발생하였다. 일단 새로운 도덕 이데올로기는 해체되었고, 중국은 또다시 현대화를 목표로 삼았고, 경제발전 및 세계로의 진입이 나타났다.

이 시기구분에서 당대와 현대를 구별해 내는 이정표는 신문화운동이다. 신문화운동은 10년에 달하였으며, 사건이 아닌 하나의 시기였다. 사건이 아닌 시기로 분수령을 삼은 것은 우리가 앞서 내렸던 역사 시기구분의 분수령

에 대한 정의, 즉 반드시 사람의 기본 관념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근대적 관념의 재구성에 10년은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관념사를 통한 시기구분의 엄격성과 과학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써 신문 화운동이 단순히 근대 사회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계몽운동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양면의 칼날로서, 다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서양의 근대적 관념에 대한 학습의 총결이며 가족의 내부로 들어가 모든 가치를 새롭게 살펴보는 위대한 계몽운동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에 대해 학습해 온 것들의 재구성이며 중국식 사유 방식의 추가이다. 그것은 보편적인 근대적 가치 학습의 미완을 야기했고, 계몽운동은 다시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또한 중국 특유의 현대 가치를 만들어 냈으며, 다원적 근대성이 출현할 수 있도록 했다.

7. 3단계 역사 시기구분의 배후—초안정시스템

우리는 중국 근현대사의 시기구분을 기본 관념의 변천에 입각하였고, 이 데올로기를 초월하였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 사관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라도 포용할 수 있다. 독자는 그런 독특한 시기구분 연구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지 물을 것이다. 통상 역사를 전통과 근대로 나누는 것은 사회의 근대로의 전환을 그려내기 위해서다. 중국 전통사회의 근대로의 전환은 결국 ‘근대’, ‘현대’와 ‘당대’의 3단계로 존재하며, 이는 중국 근현대사 발전 과정의 독특성을 의미한다.

3단계 속에서 ‘근대’, ‘현대’, ‘당대’ 각각의 시간의 폭을 보자. 서양에 대한 학습을 통한 근대적 관념의 수용단계는 매우 짧아 20년이 채 되지 않지만, 서양 근대적 관념에 대한 선택적 수용의 ‘근대’와 서양 근대적 관념의 재구성과 중국 당대사상의 전개는 모두 매우 길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비서양문명권의 근대로의 전환은 모두 학습의 과정인데, 중국의 사회 전환 과정 속에

서 학습의 단계가 그렇게 짧았다는 것은 곧 중국 근현대사에 하나의 또 다른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전통사회가 서양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현대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과 동시에 사회가 그 내재 논리의 전개에 따라서 변천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사회 고유의 내재적 변천논리는 또한 무엇인가?

나와 류칭평은 중국 전통사회를 초안정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초안정시스템의 기본 특징은 사회구조의 변화 추세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고, 왕조의 주기적 교체와 가(家)-국(國) 동일구조 대일통 제국의 장기지속은 동일한 본질의 두 측면이다. 또한 유가의 이데올로기는 사회 통합과 왕조의 주기적 교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¹⁸⁾ 일단 초안정시스템이 외부에 대해서 개방되면, 그 모습은 구이데올로기 통합사회의 해체—이데올로기 교체—신이데올로기 사회 통합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며,¹⁹⁾ 우리는 일찍이 그것을 통해 중국 근현대사를 분석했었다. 그 밖에도 신이데올로기의 형성은 초안정시스템의 문화융합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일찍이 사상사 저작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논한 바 있다.²⁰⁾ 이 모든 것은 초안정시스템의 기본구성이 근현대에서도 아직 완전히 타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초안정시스템 사관으로 어떻게 중국 근현대사의 시기를 구분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다. 현재, 관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통계연구로부터 얻은 시기구분은 정확하게 중국 근대화가 초안정시스템의 속박을 받았음을 증명한다. 이 때문에 상술한 3단계설은 본질적으로 중국 사회의 근대로의 전환에 대한 초안정시스템 사관의 시기구분인 것이다.

초안정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회의 혼란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18) 金觀濤·劉青峰, 1992, 『興盛與危機—論中國社會的超穩定結構』(增訂本),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총379쪽.

19) 金觀濤·劉青峰, 1993, 『開放中的變遷—再論中國社會超穩定結構』,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총534쪽.

20) 金觀濤·劉青峰, 2000, 『中國現代思想的起源—超穩定結構與中國政治文化的演變(第一卷)』,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총4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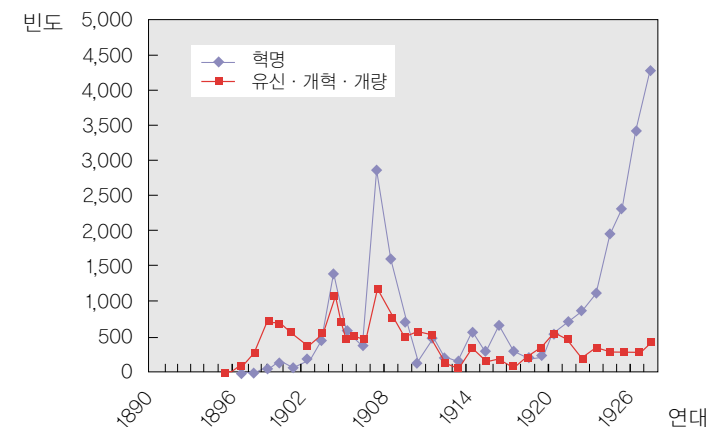
왕조가 교체되며(전통사회의 틀은 동란이 지난 후 재건된다), 왕조 중건의 역량은 도덕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사회 통합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중국 근현대사가 초안정시스템의 제약을 받는 이상, 반드시 왕조교체의 잔영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실 또한 그러하다. 바로 '근대'에, 신왕조의 건립 없이 이루어진 구사회구조의 재구성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태평천국 농민운동 후의 동치중흥(同治中興)이다. 그러나 '당대'에 대해서도 왕조교체의 잔영이 있겠는가? 우리는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바로 5·4운동 이후 혁명(이데올로기)을 통해 실현한 사회의 재통합이다. 태평천국의 난 이후 동치중흥은 구조적 중건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문제는 중국 근현대의 혁명이 왕조교체와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다.

20세기 중국혁명의 성질을 판단하려면 반드시 이 사회행동을 지배한 보편관념을 분석해야 하며, 또한 혁명의 관념을 연구해야 한다. 내가 강조하려는 것은 왕조교체, 바로 중국 전통사회에 있어서 혁명이라는 이 관념이 갖는 원래 의미이다. 고문에서 '혁(革)'자의 원의는 '30년을 1세(世)로 하며, 도(道)가 바뀐다'는 의미이고, '명(命)'은 '령(令)'에서 나왔으며, 천명 혹은 모종의 주어진 질서를 말한다. '혁명'은 예부터 천도의 주기적 변화의 대명사였고, 한대 이후 왕조교체를 말하는 것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1890년 왕타오(王韜)는 이 글자로 프랑스 대혁명을 번역하였고, 이로부터 왕조교체와 관련이 있는 관념으로 서양의 revolution을 이해하는 전례를 열었다.

데이터베이스 통계분석은 혁명 관념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다. 우리는 무술변법 이전, 중국인의 혁명에 대한 이해가 전통적 의미의 선상에 있음을 발견했다. 왕조의 역성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대동란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기도 하며, 부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무술변법의 유산은 청 정부의 개혁 실패를 의미하고 있으며, 청 왕조 통치의 정당성 상실은 왕조교체의 기제가 현실화될 수 있게 하였다. 1900년 의화단 사건 이후 혁명 관념이 일었는데, '왕조교체'와 서양의 revolution의 의미가 결합되어, 청 왕

조를 뒤집고 새로운 사회를 건립하는 것의 정당성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학습 단계의 도래로 혁명은 현대화 학습에 압도되었다.

1901년 청 조정은 신정(新政)의 추진을 선포하였고, 러일전쟁 이후 '전제'는 '입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조정과 사대부의 공통 인식이 되었다. 입헌의 준비 등 일련의 개혁이 당정지들에 의해 진행되고 모종의 효과를 얻었을 때, 왕조교체와 철저한 변혁의 '혁명'은 개량주의의 사상—중학과 서학은 두 개의 상호 불간섭 영역이라는 이원론적 이데올로기—의 중요성보다 훨씬 못 미쳤다. 그러므로 신문화운동 이전, 혁명은 단지 소수의 급진 지식인 특히 무정부주의자들이나 숭상하는 것이었고, 사회에서 결코 큰 영향은 없었다. 통계분석은 또한 신해혁명이 본질적으로 현대화 과정에서의 지방분권운동에 불과하며, 혁명 관념의 전파와는 관계가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민당의 제2차 혁명과 당시 사회 엘리트들의 사회안정 추구는 완전히 반대의 길로 나아갔고,民国 초년의 혁명은 결코 정치제도 정당성의 기초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신해혁명의 발생을 지배한 것은 결코 혁명 관념이 아니었다. 역사에 대한 추적 속에서 혁명은 '당대'의 사건에 속한다.



[그림 6] '혁명'과 '유신'·'개혁'·'개량'의 사용빈도(1890~1926)

[그림 6]은 '혁명'과 '유신', '개량', '개혁' 등 키워드의 빈도 통계이다. 우리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대체로 1898년 무술변법의 실패 이후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청 정부가 유신과 헌정을 시도할 때, '혁명'이라는 단어의 빈도는 크게 하강하였다. 신해혁명은 혁명이 저조할 때 발생하였고, 그것은 혁명 관념에 지배된 사회행동이 아니었다. 통계는 또한 1919년 이후(즉 당대)에야 혁명이 비로소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²¹⁾

사실 그렇지 않은가?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칭제와 함께 온 정치혼란은 서양 정치제도 학습의 실패를 의미하며, 20세기 초 현대화운동이 일으킨 사회통합의 위기는 결국 신문화운동의 폭발을 야기하였다. 신문화운동 속에서 개량주의 이데올로기는 비판을 받았고, 청말 이래 왕조교체 및 철저한 변혁의 요구 주장이 팽배해졌다. 서양의 revolution의 이념은 프랑스 대혁명과 러시아 10월 혁명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매개되었고, 결국 중국 전통의 혁명 관념의 틀에 편입되어, 중국식의 근대적 혁명 관념과 혁명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다. 중국식 근대적 혁명관은 서양의 revolution이 갖고 있는 철저한 개혁·진보 등의 함의를 갖추고 있음에도, 서양의 revolution과 가장 다른 점은 그것이 여전히 천도(天道)라는 점이다. 중국 전통 혁명관에서 천도는 우주질서와 개인도덕이라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중국식 근대적 혁명관에도 또한 이 둘의 상호 연관적 구조가 있다. 그것과 전통 혁명관의 차이는 우주질서와 개인도덕이 더 이상 유학의 규정에서 비롯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천도에 있어서, 진보는 우주의 규칙이라 불렀고, 평등과 모든 차별의 해소는 유가 윤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도덕이 되었다.

신문화운동 이후의 30년은 중국식 근대적 혁명관이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혁명 이데올로기가 정치제도 정당성의 기초가 되는 시기였다. 중국이 혁명으로 정당성을 삼고 사회 재통합을 실현한 것에는 반드시 이중의 역사적 함

의가 있다. 첫째, 중국식 근대적 혁명관이 서양 revolution의 각종 함의를 흡수했는데, 중국혁명은 서양의 민주공화제도를 학습하는 데 실패한 후 서양과는 다른 종류의 현대 사회 양식을 찾는 시도였다. 둘째, 중국식 근대적 혁명관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전통적 틀은 20세기 중국혁명에는 반드시 전통의 왕조교체라는 잔영이 있다(예를 들면 농민혁명에 의한 신정권 수립).

혁명 이데올로기를 통한 신사회의 건설에는 1926년 국민혁명과 연이어 발생한 공산혁명 및 1966년 시작된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 포함된다. 그것들은 모두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사회를 통합하였으며, 민족국가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사실상 새로운 도덕 이데올로기로 사회 자체를 통합시키는 것은 초안정시스템의 잔영이다. 20세기 60~70년대 문화대혁명의 폭발은 중국식 현대 혁명 이데올로기관의 철저한 전개이며, 혁명의 광기 속에서 황권과 유사한 독재나 문자옥이 출현하였고, 사람들은 결국 전통사회의 가장 나쁜 일면인 복벽을 볼 수 있었다. 문화대혁명이 조성한 거대한 재난으로 중국 지식인은 혁명에 고별을 하게 되었다. 중국식 근대적 혁명관은 신도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과의 고별로 서양 현대 경제제도의 학습이 다시금 앞자리에 서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현대화 과정 속에서 창조한 새로운 도덕의 해체도 의미하는 것이다. 20세기 말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보편적 도덕 위기는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만약 당대가 신문화운동으로부터 형성된 당대 관념의 지배를 받는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날 중국 경제의 재발전은 여전히 당대 관념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다.

8. 마무리: 러브조이(Arthur O. Lovejoy)의 강령 검증

일찍이 1930년대 러브조이는 관념사 연구라는 분야를 건립하면서 관념에 대해서 일련의 중대한 논술을 했다. 우선 그는 관념을 각종 철학학설(이데올

21) 金觀濤·劉青峰, 2008, 「革命觀念在中國的起源和演變」, 앞의 책, 374쪽.

로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보았으며, 복잡한 철학학설에 비해서 관념은 구성 요소에 불변성이 있다고 간주하였다.²²⁾ 또한 그가 기술한 관념은 통상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관념은 한 시대의 사고에 작용하는 크고 작은 무의식적인 정신적 습관이다.

관념은 이와 같이 보편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성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념에는 형이상학적 파토스(pathos)가 있다

관념은 역사의미론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

관념은 역사 속에서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며, 보편적이다.²³⁾

그래서 관념사는 인문·역사 연구에서 독특한 통합학문이 되었다. 러브조이가 이런 관점을 제기하였을 때, 결코 증거가 많지는 않았다. 사실상 당시 이것은 망상에 불과했다. 중국 현대 관념의 기원, 변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신도덕 이데올로기를 조성하였는지에 대한 본문의 연구는 바로 러브조이의 정확성을 증명하고 있다

우선 우리의 연구는 이데올로기는 관념 체계로서 그야말로 그 구성 요소—관념—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신문화운동 시기 중국식 당대 관념이 형성된 후에야 비로소 한발 더 나아가 삼민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두 가지 신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다. 관념은 이데올로기보다 더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데올로기가 해체될 때에도, 그것을 조성했던 기본 원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점은 중국 20세기에서 특히 분명하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대륙의 혁명 이데올로기는 해체되었지만, 당대 중국인을 지배하던 기본 관념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5·4신문화운

동이 주조한 중국식 현대 관념 속에서 살고 있었다.

러브조이가 인식한 것처럼 관념은 종종 역사상 장기간 작용하는 사유 방식을 포함하며, 그것들 간의 관계는 사상사 속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습관이나 도덕보다 더 심층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그는 그것을 형이상학적 파토스라고 하였다). 혁명 관념, 중국식 과학관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모두 이 점을 증명하였다. 물론 국민혁명, 공산혁명 그리고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무산계급의 문화대혁명 모두에 중국 전통혁명의(왕조순환과 도덕 이데올로기를 통한 사회 통합) 숨은 구조가 존재한다. 신문화운동 후기 중국 지식인들은 과학주의의 새로운 도덕 이데올로기를 건립하였고, 그 도덕 정당성 논증의 배후에 있던 이학적(혹은 심학적) 형이상학적 양식은 당시의 과학 관념을 분석해야 비로소 밝힐 수 있다.

필자는 관념을 키워드로 표현되는 사상으로 정의해서, 키워드의 역사미론 연구를 관념사 연구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러한 새로운 정의 속에서 사상을 표현하는 어떤 어휘도 모두 관념이며,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서양 관념사의 관념에 대한 정의를 확장시켰다. 러브조이가 제기한 관념에 대한 규정은 위의 다섯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이것은 그런 주요 관념들이 관념사 연구에서 반드시 먼저 다루어야 하는 대상임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필자의 책에서 연구한 것은 바로 그런 주요 관념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그런 관념들의 기원과 변천에 근거해서 중국 사회의 현대로의 전환의 보편적 전체상을 그려냈고, 아울러 역사의 전개 속에서의 숨은 구조가 거시적 연구에 대한 관념사의 의의를 잘 표명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22) 諾夫喬伊, 2002, 『存在巨鏈: 對一個觀念的歷史的研究』,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쪽.

23) 諾夫喬伊, 2002, 앞의 책, 5~24쪽.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同治朝籌辦夷務始末』 卷26

『荀子』

嚴復, 1986, 『嚴復集』, 北京: 中華書局.

梁啟超, 1978, 『飲冰室文集之十』第四冊, 臺北: 中華書局.

2. 단행본

金觀濤, 『探究現代社會的起源』(未刊).

金觀濤 · 劉青峰, 1992, 『興盛與危機—論中國社會的超穩定結構』(增訂本),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_____, 1993, 『開放中的變遷—再論中國社會超穩定結構』,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_____, 2000, 『中國現代思想的起源—超穩定結構與中國政治文化的演變(第一卷)』,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_____, 2008, 『觀念史研究: 中國現代重要政治術語的形成』, 香港: 香港中文大學當代中國文化研究中心.

諾夫喬伊, 2002, 『存在巨鏈: 對一個觀念的歷史的研究』,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阿倫特, 1999, 『人的條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馮契 主編, 1992, 『哲學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Raymond Williams, 2003, 『關鍵詞: 文化與社會的詞彙』, 臺北: 巨流圖書公司.

3. 논문

張灝, 1994, 『中國近代思想史的轉型時代』, 『二十一世紀』總52期.

Abstract

Historical Stages of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Chinese Society

— “Keyword-centered” in Studies of the History of Ideas —

Jin Guan-Tao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 **Key Word** : Origins and transformation of modern Chinese thought, History of ideas, Chinese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ideas, The ultra-stable system of China's social transformation, Interaction between ideas and society

This essay presents an overview of our achievements in the study of the origins and transformation of modern Chinese thought by using the database method, and addresses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Chinese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ideas. We believe that studies in the history of ideas verify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ultra-stable system of China's social transformation, and can solve the basic theoretical problems in this field mentioned by Arthur O. Lovejoy.

First of all, we chose approximately one hundred significant keywords directly related to modernity. By conducting quantitative analyses of their historical meanings, we discussed the origins and transformation of three basic elements of modernity: personal rights, instrumental rationality, and national identity in China. We discovered that China's adoption of modern values can be divided

chronologically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from 1840 to 1894, was characterized by the selective absorption of modern Western thought by Confucianism. Values not compatible with Confucianism were treated with indifference, or rejected. The stage in which modern Western thought was learnt took place after the Sino-Japanese War of 1894-95. This second stage, especially from 1900 to 1914, was also marked by the formation of a dualistic ideology, which maintained a demarcation between China and the West; personal rights, instrumental rationality, and cultural nationalism played an immense role in motivating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Chinese society. It was also a period in which Chinese political thought came closest to the West. From 1915, a stage of reconstruction replaced the former stage of learning or adoption of Western values; this third stage started with the New Culture Movement (1915-1924) and onwards. It is then that modern concepts learnt from the West underwent some transformation. Such changes gave birth to the Chinese style of modern thought, which we call contemporary Chinese thought, and which dominated the revolutions and the formation of the party-state system in China after May Fourth.

Modernity originated in the West. Generally,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societies was accomplished by learning modern Western values to establish a nation-state. But the stage of learning from the West in China was very short: less than twenty years, in fact. Traditional Chinese ways of thinking were important in the formation of Chinese modern thought. This illustrates that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Chinese society was dominated by the pattern of traditional Chinese society and the cultural-integration pattern in history; the ultra-stable system in history is as-yet unbroken. It is the pattern we suggested, to use the system theory in explaining ancient and modern Chinese history. Such a pattern is valid due to its constant and deeply-structured ways of thinking. In *Origins of Modern Chinese Thought: the Evolution of Chinese Political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ltra-Stable Structure*, we discussed the deeply-

structured ways of thinking. Our examination of those one hundred concepts provided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the constant and deeply-structured ways of thinking. Though early in the 1930s, Arthur O. Lovejoy already believed that ideas are ways of thinking which are of long duration and difficult to change, his view had never been proven in historical studies. This history-of-ideas study of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Chinese society is a test of Lovejoy's point of view, and it marks the beginning of a new field of research of the interaction between ideas and society.